



지난 1968년 준공 당시부터 43년 동안 광주 현대사의 중심에 자리했던 전일빌딩이 조만간 헐릴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2일 경매에서 138억여원에 낙찰받은 전일빌딩 부지에는 향후 주차장과 함께 문화관련시설이 들어서는 7~8층 규모의 건축물이 신축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랜드마크 전일빌딩 헐린다

광주도시공사 138억에 낙찰...문화전당 주차장·문화시설 신설

광주 현대사의 중심에 자리했던 전일빌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40년 이상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에 위치하며 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이 건물은 조만간 헐리고 그 자리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주차장 및 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지방법

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방법 입찰경매에서 실시된 전일빌딩 3차 경매에서 광주도시공사가 138억1165만5000원을 써 내 이 건물을 낙찰받았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은 1만4207㎡인 이 건물 가운데 경매 대상 물건은 6개 층과 부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최저입찰가격은 246억6364만원으로 결정됐으나 이날 3차 경매에서 최초 최저입찰가격의 56%에 경매가 시작됐다. 이번 경매는 전일빌딩을 담보로 전일실업에 15억원을 빌려준 신한은행이 지난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전일빌딩을 낙찰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등과 사전협의

를 거쳐 경매에 참여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전일빌딩은 문화투자진흥지구 내 중요시설이면서 문화전당과 지척에 위치해 개인이나 업체가 이 건물을 낙찰받아 개발에 나설 경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지켜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두 차례 유찰돼 가격 부담도 적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일빌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이 건물 지분의 3분의 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과 조만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일빌딩은 광주시가 12m(폭)에 불과했던 금남로를 지금의 30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나선 1968년 12월10일 최초의 7층 건물로 금남로 1가 1번지에 들어선 이후 4차례의 증축 과정을 거쳐 10층으로 완공됐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입주했던 건물로, 지난 1980년 언론통합 과정에서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이 합쳐진 광주일보가 2004년까지 자리하는 등 호남 언론사에서 도배놓을 수 없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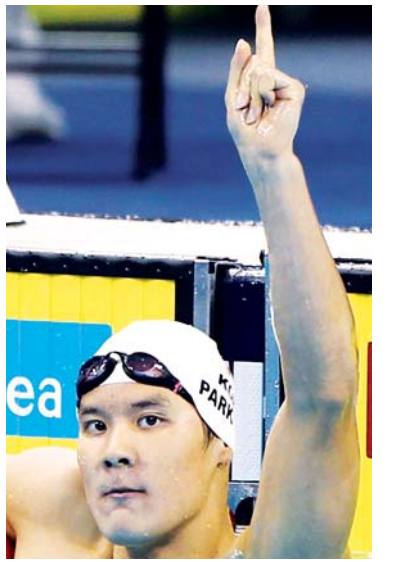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 건물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금남로를 지키던 시민군이 계엄군의 진압과 총격을 피해 찾아들었던 ‘도피처’였고, 내외신 기자들이 군부독재의 날선 통제 속에서 시민의 항거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을 취재·보도했던 ‘격동의 현장’이었다. 또 이 건물 지하에 있던 전일다방은 광주우체국 앞 우다방과 함께 70·80년대의 낭만과 향수를 간직한 만남의 광장이기도 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태환 자유형 400m ‘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린보이’ 박태환(22·단국대)이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땀다. <관련기사 16면> 박태환은 24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04로 맞수 손양(중국·3분43초24)과 세계기록(3

분40초07)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독일·3분44초14)을 제치고 1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8명의 선수 가운데 스타트가 가장 빨랐던 박태환은 초반부터 출근 선수를 유지하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중반 속도조절을 한 뒤 후반 300m 지점에서 막판 스피드를 낸 박태환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이번 대회 첫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1인당 2300만원...기아차 ‘성과금 잔치’

임협, 역대 최단기간...2년 연속 무파업 타결 광주공장만 154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했다. <관련기사 8면> 사상 최대 생산 성과에 걸맞게 임협 내용도 역대 최대 규모다. 기아차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2300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되고, 광주공장 전체에 1541억원 가량이 풀리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사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임금협상 7차 본교섭을 열어 기본급 9만원(5.17%)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자사주 80주 지급 등에 잠

정합의 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기아차는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단 교섭기간인 16일만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노사협상 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임금 인상분과 성과·격려금은 역대 임협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기아차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2300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됐다. 27일 찬반투표 통과 즉시 성과금 100%와 격려금 700만원이 지급된다. 또 10월말에 자사주 80

주(22일 현재 1주당 7만7300원, 618만여원)를 받고, 12월말 성과금 200%를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6700여명이 근무하는 광주공장에는 1541억원 가량이 풀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주간연속 2교대제는 내년 10일동안 시범운영해 보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선과 설비투자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데 이어 올해도 판매 호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 ‘난동 군의원’ 수사

의장 등 2명 곧 소환 민주 도당 징계절차

화순군의회 의장 등 의원 3명의 군청 사무실 ‘난동 사건’(광주일보 22일자 1·3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민주당 전남도당도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화순군청 사무실에서 간부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고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조유송 군의

회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 등 군의원 2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물의를 빚은 군의원 3명 중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만류만 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2명에 대해서만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또 24일 폭행 피해 당사자인 안도 과장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안과장은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이날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번 화순 군의원 난동 사건과 관련, 민주당 소속인 조유송 화순군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도당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 농·수·축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1회 아줌마 축전

2011. 9. 2(금)~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첫째 날 9월 2일(금)

남진, 현숙, 조원조, 윤대규, 백승일

식전공연 | 농산물개장식 | 아줌마축전개막식
축하공연(가인과 비보이의 만남) | 아줌마팔세름대회 | 벨리댄스경연(예선) | 아줌마명상편지 | 유명가수축하콘서트

둘째 날 9월 3일(토)

해바라기, 유리성자, 백영규

시·군예술단공연 | 호남예술단공연 | 아줌마골든벨 | 팔도시투리대회(속풀이발연대) | 다문화가족 정기자랑대회(예선) | 벨리댄스경연(결선) | 아줌마시낭송대회 | 가요속이야기 콘서트(7080가수)

셋째 날 9월 4일(일)

김홍철(요동송)

시·군예술단공연 | 마당놀이(사립사는세상) | 다문화가족 정기자랑(결선) | 품바경연대회(결선) | 아줌마가요제(결선)

※9월 1일(목) | 전야제 | 품바경연대회(예선) | 아줌마가요제(예선)
(주최사 사정에 의해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220-0555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